

# 참사람 36.5°C

2021년 8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CONTENTS 목차

## 발행일

2021년 8월 4일 수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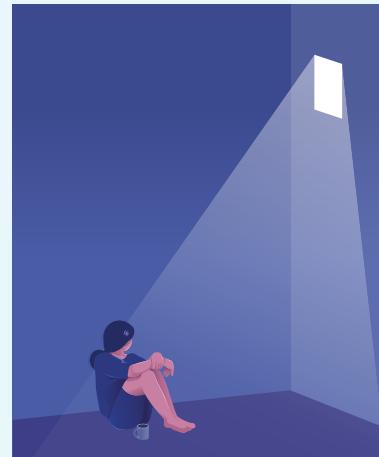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http://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http://chamsaram.org)



## Cover Story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단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결과입니다.  
힘들게 훌로서기를 준비해온 청년들의  
아름다운 비상(飛上)을 기대합니다.



04

## 참사람을 말하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다는 것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날개 -



06

##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건강한 자원봉사

글 \_ 임성관



08

### 참사람 인터뷰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사람  
구영원 올드림 대표



12

###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자립지원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어떻게 개선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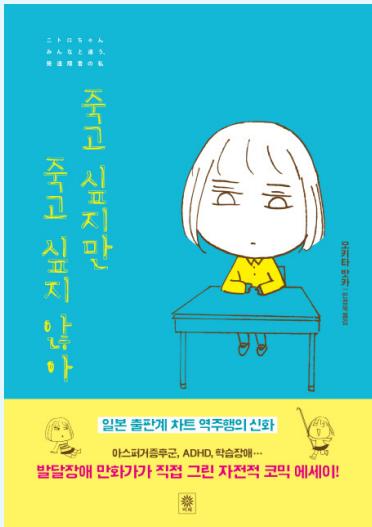


16

### 미래를 보는 창

부모, 교사가 먼저 알아야 할  
디지털 교육  
글\_홍지연

경기 용인 석성초 교사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연구개발팀장



10

### 책으로, 참사람으로

나의 어른스러운  
친구 니트로에게

글\_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이예린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는  
어떤 책?

글\_우신영  
인천대 국어교육과 교수



14

### 전문가 칼럼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부모님께 혼나는 나, 고민이에요!

글\_장혜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치료상담실 상담사

19

### 교보교육재단 소식

교보교육재단, 다문화가족 위한  
‘가족소통캠프’ 개최

가족소통캠프  
2021년 9월 일정 안내

#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다는 것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날개

올해 5월, 보육원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유년시절 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다친 마음을 안고 퇴소 한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없어 무연고로 떠날 뻔했던 그의 상주가 되어준 이들은 바로 같은 보육원 출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몇 년 전, 또 한 명의 청년이 세상을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재단과도 인연이 있었던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도, 죽은 자신이 발견되지 못할까 봐 한밤 중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활의 터전이었던 보육원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남짓 된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청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했습니다. 매년 약 2,400여명의 청년들이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나와 평균 500만원여의 자립정착금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들 청년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흘로서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시설에 맡겼던, ‘없느니만 못한’ 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자립정착금 마저 빼앗아가거나 보증 대리인으로 내세워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했다면 보편적인 20대처럼 젊음의 나날을 만끽할 나이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날개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이러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난 20여 년간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역경에 처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보육원 출신 등 400여 명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누적 장학금은 50억여 원에 달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서로가 상부상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 제도도 필요하지만, 홀로서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플랫폼 성격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망다솜은 장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이름을 드높이는 것보다도, 스스로 삶의 기반을 세우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유대감과 정서적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꼭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나눌 수 있는 이들. 내가 어려울 때 주저 없이 달려가 기댈 수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은 희망다솜 장학생들이 어엿한 한 가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살뜰하게 서로를 챙기고,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대학교 입학부터 취업과 결혼까지 생애주기의 과정들을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들이야말로 혈연보다 더 진한 유대감으로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더불어 희망다솜 장학생들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적절한 때에 물과 거름을 제공해야만 하듯이,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그 어떤 청춘도 제대로 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방안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보호기간이 기존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되고,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의 지원기간이 늘어나며, 지역 모임을 통한 심리적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준 기관과 어른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강화된 지원책을 발판 삼아 자립준비청년들 모두 단단한 청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 교보빌딩의 정문을 장식한 광화문 글판의 문구는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의 할 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올 여름의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라는 내용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관심이 없었던 누군가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이 가진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이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에 홀로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 그들이 가진 그늘을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길 기대해봅니다.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건강한 자원봉사

글 \_ 독자 임성관

2년 전 12월 새벽 6시였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새벽 걷기운동을 해요. 토요일 아침이면 운동하기 위해 북한산 향해 도로를 걷는데 어떤 남자가 도로를 쓸고 있었어요. 그는 환경미화원의 옷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새벽이라 확실히 보이지 않아 다가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청소하고 계신 데 환경미화원 이세요?”

“아뇨, 저는 청소부가 아니고 근처 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 삼아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2018년 도로 확장공사로 강북구 수유 1동의 ‘무네미’ 도로는 폭이 12미터로 넓어 졌어요. 그런데 새롭게 단장한 곳에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어 지저분했어요. 그는 이곳을 지나며 누군가 청소를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결심했어요. 그가 지난 2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에 나가 길을 청소해 거리가 항상 깨끗해요. 일용직 어르신들이 청소하러 나오면 쓰레기가 없어 봉투만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저의 집은 ‘무네미’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변 4층 건물입니다. 새벽에 짹짜 소리가 나서 보면 그가 길을 쓸고 있어요. 그의 성실함과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자원봉사를 해요. 게다가 자비로 청소도구를 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가 청소하기 전에는 공사장 주변에 쓰레기더미가 수북하게 있었어요. 그가 청소를 시작한 이후로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청소를 하여 주민들은 당연히 용역에서 나와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수유1동 주민센터 청소과를 찾아 그의 이야기를 하고 청소도구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청소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게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는 여름에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청소를 하고, 추운 겨울은 6시부터 8시까지, 정확히 두 시간씩 청소해요.



어느 날 길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저씨, 새벽에 청소는 왜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운동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사업하며 돈을 벌어보았고, 실패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남매를 키우며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이제는 집도 있고, 자식들을 결혼시켰으니 부모의 임무를 다 마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업한다고 아내에게 고생을 꽤 시켰지요. 아내는 결혼 초부터 가난한 신혼생활로 고생을 했어요. 넉넉하진 못해도 두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앞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 병원을 찾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의사는 조용히 그를 불러 “좀 더 일찍 왔으면 생명은 건질 수 있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셔서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세요.”라고 했어요. 청천벽력,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을 느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동안 부부가 힘들게 살면서 노년에 알콩달콩 제2의 인생을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형편이 넉넉하진 못해도 대학공부 마치고, 직장도 자식들이 알아서 들어갔어요. 아내는 얼마 동안 암으로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과 딸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짹꿍을 만나 각자 출가를 했어요. 저는 혼자 큰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 죽은 아내 생각이 더욱 나더군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겨서 살고 싶었어요. 그간 정답게 아이들 키우면서 살던 집을 팔아 남매에게 적은 액수지만 미리 재산을 나눠 줬지요. 저는 남은 노후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했어요. 홀로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서 우울해져요. 어느 날 자주 지나는 길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꼈고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동네를 청소해 길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주민들에게는 복입니다. 자기 집 앞도 쓸기 싫어하는 현실입니다. 그는 청소하는 순간은 외롭고, 우울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웃들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해요. 그의 선행처럼 자원봉사는 ‘외로움, 우울함’은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진대요. 자원봉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2시간씩 깨끗하게 하여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는 ‘건강한 자원봉사자’로 마을 지킴이, 새벽을 깨우는 착한 아저씨, 그리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역의 ‘큰 일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 함께 견인하는 사람

### 구영원 올드림 대표

구영원 대표는 지난 2007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으로 선정되며 교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필라테스·요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가이자 교육단체 올드림의 대표로서,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과 보호종료 이후 부침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자립 노하우와 성장을 나눔 하고 있습니다. 희망다솜 후배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배우고 싶은 롤모델로 성공적인 자립의 아이콘이 된 그녀를 만나 참사람의 가치를 들어보았습니다.



청소년기를 기관에서 보내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저희 집 이름은 그룹홈 ‘꽃담’이었어요. 그룹홈이란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보호시설로, 제도 초창기였던 당시는 지원체계가 미흡했어요. 이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은 그림의 떡이었죠. 이 시기 저는 미술에 뚝 빠져 있었어요. 미대로 진학하여 디자이너가 되고자 고등학교도 특목고로 진학해 3년 간 그림을 그렸었어요. 하지만 미대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걷기에는 너무 비싼 꿈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입학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방황이 시작됐지만, 센터장님께서 먼 미래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가야 한다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비록 미대가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대신 교보의 ‘희망다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이 되신 후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회적 가족이 생겼어요.’ 희망다솜 덕분에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었고, 평생을 함께 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희망다솜은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커뮤니티입니다. 매년 선배들은 신입 장학생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희망다솜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안에서 ‘사회적 가족’이 되어가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수는 안아주고, 때로는 힘이 되는 사회적 가족이요.

저희는 캠프에서 추억을 쌓고, 고민을 나누고, 취업 준비를 하고, 인생에서 가장 축하받을 결혼식을 같이 하고, 인생의 마무리인 장례식을 지켜주는 등 생애주기의 매 순간들을 함께 해요. 이제 곧 2021년을 새롭게 선발하는데, 벌써 새로운 가족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홀로 자립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활동했어요. 앞서 자립을 경험했던 선배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임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임원을 맡아 조직을 체계화하고 시설 후배들과 자립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탐색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랜 기간 목소리를 낸 결과가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함께 애써준 1~11기 서포터즈, 아동권리보장원 선생님들, 그리고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이동욱 바른진로 진학연구소 소장님의 생각났어요. 소장님은 일찍부터 자립준비청년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인지하셨어요.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함지영 선생님, 김보욱 선생님까지 이 세 분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수 많은 재단, 기업들에게 제안을 했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립준비청년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주고, 목소리를 내준 이들이 있었기에 정책 개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그리고 목소리를 내 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요.

**교보생명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국내에서 아마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일텐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형 금융교육입니다. 100만원의 자립성장지원금을 제공,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하여 보호종료 과정을 겪었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립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수성에

맞춤화된 성장지원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10년 이상 자립 경험이 있는 보호종료 선배들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금융교육 및 실습에 그치지 않고, 자립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나눔 할 수 있는 자립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을 후배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꼭 해주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항상 이야기 속에, 가슴 깊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요즘은 주토피아의 주제곡인 ‘try everything’을 자주 듣고 있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익히면서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가사입니다. 마치 저의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노래 같아요. 저는 자립을 앞둔 후배 청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시설을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딛는데 실수와 실패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 말고 뭐든 해보세요. 도전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어요. 후배 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는 분들에게 대해 감사함을 잊지 말고 자신들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 일단 뭐든 시작해보자구요!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책은 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 목소리를 내준 결과라며, 이제는 훌륭하게 자립해나가는 모습으로 보답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구영원 대표. 그녀는 후배 청년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모색하고 해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처럼, 자립준비청년들 모두가 강화된 지원책을 발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나의 어른스러운 친구 니트로에게



글 \_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이예린

다다야 안녕? 난 한국에서 사는 이예린이라고 해. 네가 주인공인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잘 읽었어. 일본에서는 제목이 다르다면? '니트로, 모두와 다르잖아. 발달장애인 나.'라고 번역해 봤는데 니트로가 하고 싶었던 의미를 내가 제대로 번역한 것이라면 좋겠다. 나는 두 개의 제목 다 다르게 맘에 들어. 먼저 일본 제목은, 니트로의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이미지와 함께 은연중 슬픔에 무뎌진 니트로가 보이고, 우리나라 제목은 니트로가 창문에서 죽고 싶어 하던 장면을 더욱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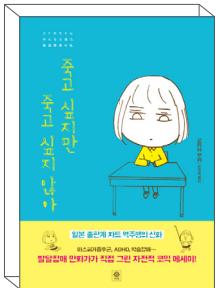
니트로는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들려나? 니트로라면 나처럼 둘 다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 니트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마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용기가 없었던 것도 얹을해서 죽지 못하는 선택뿐이었던 니트로의 마음이 나에게 잘 전해졌어. 얼마나 혼자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면서 그때의 니트로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

아마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니트로보다 더 빨리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정말 잘했어. 너의 선택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니트로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 니트로 덕분에 '집'이라는 곳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 니트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는 그 일을 맡하지 않았잖아.

난 그 이유를 듣고 어린아이가 했던 생각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 평범하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고, 평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는 니트로의 생각은 그동안 니트로가 밝은 모습을 보이며 살기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었어. 다른 어른도 그런 성숙한 생각은 하지 못할 거야. 니트로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 앞에서만큼은 너를 너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집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으면 좋겠어.

난 너의 밝지 않은 모습도 감싸고 안아주며 치료해줄 수 있어. 너를 알아가며 많이 강해졌거든. 난 항상 남들과 다르면 평범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니트로처럼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외면하며 '남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냈지. 하지만 정말 힘들더라.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 체력을 3배를 더 쓰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니트로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특성일 뿐이라고 니트로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 내가 남들이 좋아하는 치마를 즐겨 입지 않는 것도,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사람과 말하는 게 서툰 것도

##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는 어떤 책?



학교라는 집단이 때론 한 아이를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그리고 그 절망을  
아이는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에 가는 게 일상의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어 버렸지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언택트 교육의 과로움과 불가능을 토로합니다. 지식의 전달은 온라인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갈등하면서 일어나는 ‘배움’은 그 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학교가 늘 즐겁고 기쁜 배움의 장(field)만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참혹한 억압과 폭력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던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니트로는 사실 작가 오키타

밧카의 분신입니다. 작가는 처절할 만큼 학교에서 괴로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시간과 고통을 통과하여 어른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아>라는 하나의 책으로 승화시켜냅니다. 모든 절망은, 이야기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학교와 사회가 때로는 우리를 키워내고 때로는 우리를 숨 막히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날의 삶을 살아내고 기록하고 죽을힘을 다해 한 뼘의 성장을 이룩해냅니다. 여러분도 니트로와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분의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마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해봅니다.

### 우신영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소설가



문학에 대해 생각하고,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문학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내면아이가 숨어있다 믿습니다. 사람들 가슴 속에는 문학으로 타오르길 기다리는 불꽃이 깃들어 있다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마침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문학교육의 길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모두 내 특성인데 왜 남에게 보여 치면 안될까?라는 질문을 내게 하게 됐고, 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해주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준 니트로가 정말 고마웠어.

나도 니트로처럼 평범하게 여겨지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 이젠 나도 니트로도 더 이상 자신을 잊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히라타 선생님처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평범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 넣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비라 선생님 같은 분들도 세상엔 정말 많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니트로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많을 거야.

사실 많지도 않아도 괜찮아. 10명 중 모두가 자신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3명 만이라도 자신을 좋아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니트로는 벌써 성공했네. 니트로의 엄마, 가비라 선생님, 그리고 나. 니트로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거야. 앞으로도 니트로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많이 있어.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고 문제아도 아니야. 너의 다른은 너를 빛나게 해줄 개성일 뿐이야. 앞으로도 아무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 말해줘. 언제든지 들어줄게. 평범한 너의 이야기를.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까?

## 현행

### 자산형성(아동기)



#### 디딤씨앗통장 개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돋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기준 5만원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학자금/기술자격 취득/취업훈련/창업/주거마련 등의 자립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만 24세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

### 자립체험(청소년기)



#### 자립체험 프로그램

보호아동이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립생활관에서 2박 3일~5박 6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생활관리, 자산관리, 집 구하기 등의 단계로 구성. 자립생활관은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청도 2개소, 전라도 2개소 등 전국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개소를 준비 중

### 자립시행(독립이후)



#### 자립정책금

만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1인당 500~8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시설에 거주했던 아동이 대상이며, 보호종료 월로부터 3년까지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 거주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대상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지역별 차등)과 월 임대료 일부지원. 2년씩 최대 9회 까지 재계약 가능

#### 자립정보지원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을 21년 1월부터 운영 중. 신규 자립지원제도 및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정보, 정책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청년들이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설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8월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향후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강화방안의 핵심은 보호기간의 확대입니다. 보호종료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아동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담기관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약 120명의 전담인력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자립수당은 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나, 대신 기준에는 최대 3년 간 지원했던 것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동의 핵심 자산형성지원책인 디딤씨앗통장 또한 정부의 매칭비율 1:1에서 1:2로 개선하고, 심리지원을 신설하여 상담·치료서비스 외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등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었던 결과가 이렇듯 정책에 반영 되었는데요, 정부가 새롭게 개편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가 부디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 향후

### 보호권리강화



- 기준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한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 자립 수당 강화



- 자립수당지급을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은 1:2, 지원한도는 월 10만원으로 확대

### 주거 지원강화



- 독립 8개월 전부터 주거 및 상담 설계
- 공공임대 공급지원 확대
- 주거비 등 사례관리지원을 기준 10개 시도 377명에서 17개 시도 1,000명으로 확대

### 전담 기관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기준 8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국비지원을 통해 120명의 전담인력 확충

### 자립 역량 강화



- 진로상담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학진학 기회 및 국가장학금/ 기숙사 지원 강화
- 기술/자격 취득 등의 기회를 강화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 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외

### 마음 안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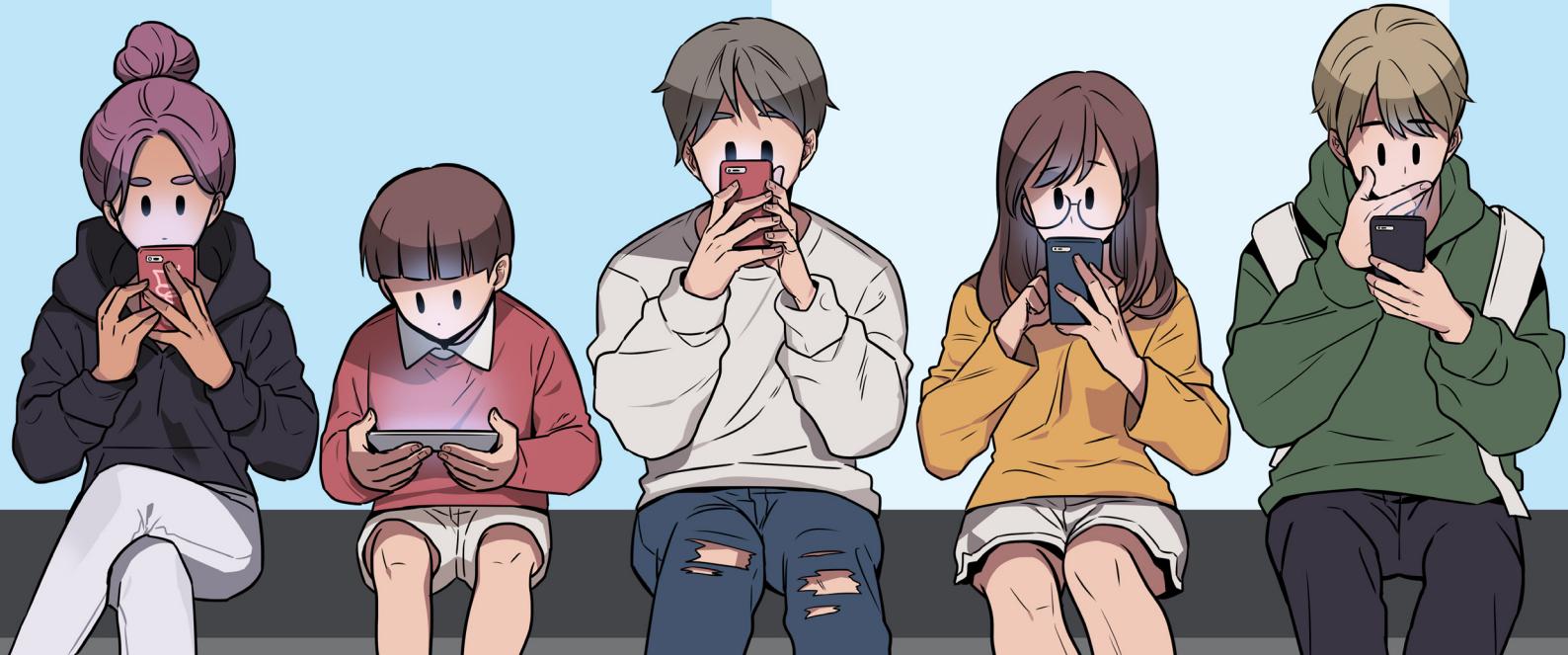
- 심리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사업 확대
-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멘토링 지원
-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기준 1개 모임 연 30명에서 6개 모임 연 120명 이상 확대

#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부모님께 혼나는 나, 고민이에요!

저는 폰게임을 좋아해요. 처음엔 친구들이 다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오픈 채팅도 하니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서 조절해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넌 왜 게임을 줄일 생각조차 안 하냐며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제 스마트폰을 던져서 부숴버렸어요. 스마트폰 하나 컨트롤 못하는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빠져 버린 것 같아요.

저도 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혼이 났다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조절해보려고 애쓰지만 '이제 안 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 실패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친구의 용기와 결심에 응원을 보내며 함께 어떻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지 생각해 봅시다.

## 첫 번째 단계

나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과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변화를 시도하고 유지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량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절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기에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 장혜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치료상담실 상담사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왜곡된 시선을 조정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쓰는데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사용 조절 앱을 활용해 실제 미디어 사용 습관, 그러니까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이고, 미디어를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그냥 많이 쓰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니까요.

## 두 번째 단계

과의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친구는 스마트폰에 왜 과의존하게 되었을까요? 보통은 ‘재미있어서’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재미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친구의 고민에서 처음 게임을 시작한 계기가 ‘친구’였고, 게임의 재미를 유지시킨 것은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는 평소에도 관계를 중요하게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일 것 같아요. 즉 우리 친구는 게임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과의존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에게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선택권은 스마트폰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혹시 스마트폰으로만, 게임 속에서만 친구를 만나고 사귀느라 현실에서 만나는 친구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진 않나요? 실제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동아리, 대외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보는 등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 채웠던 관계의 욕구를 오프라인에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 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때로 부모님께 스마트폰은 착한 내 딸, 내 아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참 나쁜 물건이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없다면 다시금 아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손쉽게 스마트폰을 부수거나 뺏어버리곤 하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내가 사준 물건을 내가 다시 뺐는데 무엇이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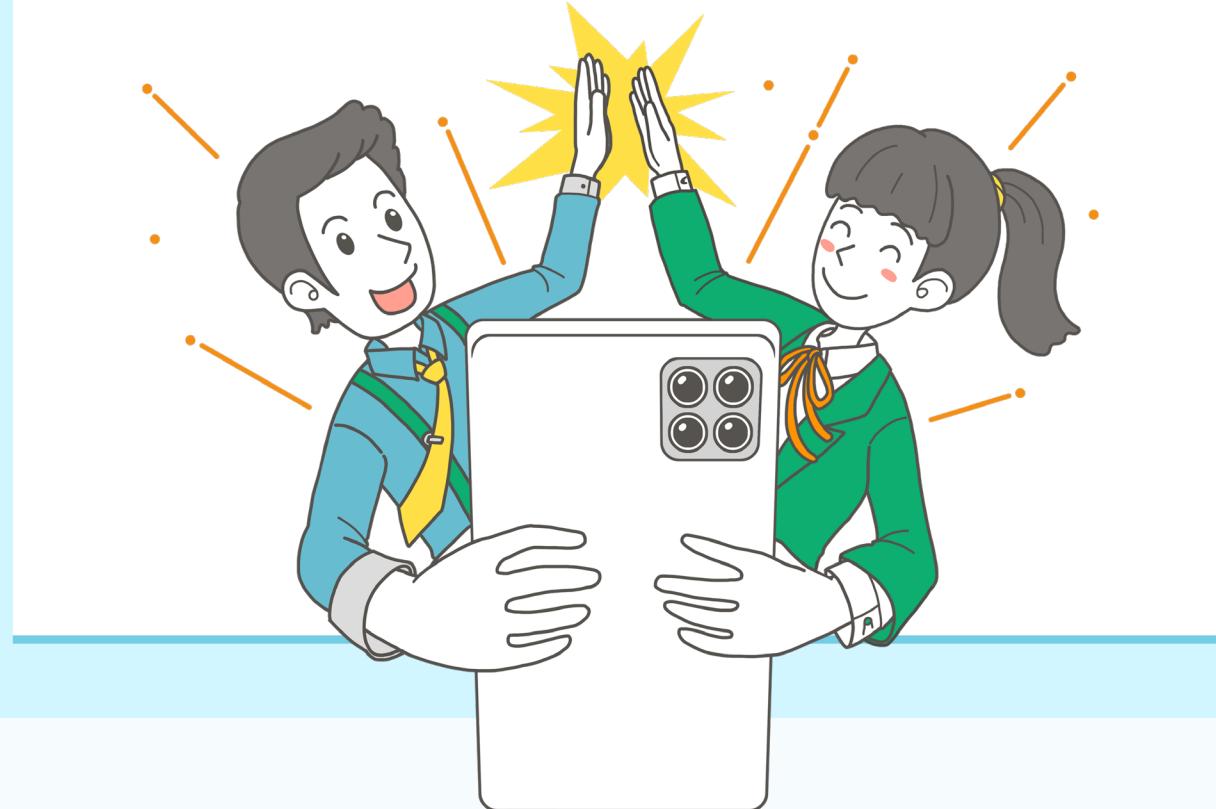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 유일한 탈출구, 스마트폰=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단순한 물건인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소중한 존재인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부순다면 아이들에겐 마치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부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조절해보는 이 경험이 아이의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며 시도하고 있을 자녀를 믿고 조절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세요.

## 마지막 단계

조절에 실패한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어도 조절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지 이유를 살피고 대안을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대신 가족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공부 시간에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보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 조절하려고 애쓰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믿고 기다리며 함께 노력해 주실 거예요.

# 부모, 교사가 먼저 알아야 할 디지털 교육



시적이며 우희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미국화가 알버트 라이더의 〈Moonlight〉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검은 구름에 달이 가려지면 칠흑 같은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배가 위태롭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하듯 한 기자는 이 작품에 “불확실성의 항해”라는 부제를 붙였다.



홍지연

경기 용인 석성초 교사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연구개발팀장

“불확실성의 항해”, 지금의 이 시국이 바로 언제 다시 검은 구름에 달이 가려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항해와도 같지 않나 싶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피해가 생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학교가 멈추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자녀를 당장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에게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원격 수업을 당장 해내야 하는 교사들에게도 이런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 속에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또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가며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통에 어찌 경중이 있을 수 있겠냐만은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이전에 모르던 것을 알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과정 속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적,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볼 때 준비되지 못한 원격수업은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학력저하’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나지, 제2의 코로나19가 언제 또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재난쯤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서 원격수업이 지금 또 어느 미래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할까?

바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원격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려면 교사와 학부모부터 먼저 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격수업을 안내했을 때 학생들보다 학부모의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교사를 역시 해보지 않았기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선택해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학부모와 아이들에 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럼 교사 그리고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이제는 교육이 ‘가르치기(Teaching)’ 중심의 방식에서 ‘배움(Learning)’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

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의 과정을 교사는 학생과 함께, 부모는 자녀와 함께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완벽하게 다 배워서 가르치자는 생각은 버리자.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쉽지 않다. 매일매일 조금씩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소양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자녀와 함께, 학생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적절한 격려와 지속적인 실천이면 충분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검색한 내용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걸러내며’, 그중에서 활용한 만한 것은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의 경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진 교육용 영상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혹은 잘 만들어지지 않은 교육용 영상을 많이 시청해야 한다. 필요한 영상을 검색을 통해 찾고, 잘 만들어진 영상을 걸러내어 그중에서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활용할만한 영상을 ‘보관’하여 필요할 때 다시 시청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험 역시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기획의 단계가 필요하고, 생산 후 이를 공유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산은 소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부터 난관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2021년 KERIS가 미래에 비춥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 서비스 운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연계 미래교육 정책 연구 추진!  
성공적인 K뉴딜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경기교사온**

---

<https://sites.google.com/ssemre.re.kr/teacheron/%ED%99%88>


**TEACHER-ON**  
온라인 학급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s://www.keris.or.kr/main/main.do>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KkEtHnP3YLn0dVz8uw5gdw>

유튜브 '구글 프레젠테이션'만 검색 결과

온라인 강좌 포스터

위의 소비하는 경험에서 체득했겠지만 바야흐로 디지털 콘텐츠 시대 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적지 않다. 교사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나 SW중심사회 등과 같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종 에듀테크 활용 수업사례나 교수법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교사온’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각종 동영상 자료, PPT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해도 좋겠다. 또 초등컴퓨팅교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는 각종 온라인수업, SW수업, AI 수업에 활용 할만한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교사들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생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도 좋겠다. 이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영상이든 협업문서이든 온라인 플랫폼이든 상관없다.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꾸준한 생산과 재생산을 통해 채워가면 된다.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자녀의 과제를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할 때 자녀가 이를 사용할 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함께 배워가며 해보는 것이다. 유튜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이 나온다. 해당 영상을 검색해 제일 쉽게 잘 설명하는 영상을 선택하는 콘텐츠 소비과정을 통해 배우고,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만들어보는 ‘생산’을 통해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물론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또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실제 본 저자가 강의했던 온라인 강좌 중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이라는 프로

그램이 있었다.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한 것이다. 수업을 들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전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역량은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했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경험 역시 필요하다.** 교사라면 자신이 직접 생산한 교육용 콘텐츠를 다른 선생님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선순환되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학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콘텐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더 큰 배움의 과정을 자녀가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들 또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매우 중요한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것은 교사에게도,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나 부모 역시 이전에 배운 적이 없기에 서툰 것도 당연하다. 그러기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하자. 자녀와 함께, 학생과 함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괜찮다.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빠져나가는 일방향의 수준높은 지식보다 함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쌓이는 지식과 경험이 훨씬 더 값진을 알아야겠다.

## 언론에서 본 가족소통캠프

# 참가가족이 다문화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숲 속 선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7월 24일~25일 1박 2일간 국립횡성숲체원과 함께 '다문화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소통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캠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족 등 총 10가족 3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횡성숲체원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진행 하에 가족과 닮은 자연물 사진 찍기, 숲 가족놀이 등 통합교육형 인성함양 숲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교보교육재단이 개발한 '톡!톡!톡!(talk) 공감시간' 보드게임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다문화 가족 소통캠프'는 가족이 또 다른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올해 가족소통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이 낸 참가비로 이번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여했던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 9월 가족소통캠프 모집

**모집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

**모집인원** 각 캠프 별 10가족

### 캠프 전체일정

구분	9월 캠프
신청 기간	8월 11~18일
캠프 날짜	9월 1~2일[11차] 대전숲체원 9월 11~12일[12차] 춘천숲체원

**프로그램** 산림 치유, 자연물을 활용한 숲 가족놀이, 가족소통 인성 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온라인 참가 신청  
컴퓨터 추첨 통해 선발(지역을 고려하여 추첨)

**참가 비** 1인당 10,000원  
(아동/성인 동일, 예시 : 4인 가족일 경우 40,000원)  
※ 숙박비, 식비, 활동비 등 전체 비용의 80%를  
교보교육재단과 교보생명이 지원합니다.  
※ 참가비는 다문화가족캠프를 위해 쓰여집니다.

**문 의** 교보교육재단 사무국  
02-925-8925



가족소통캠프 모집 신청하기

#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